

은혜를 사모합니다.

- ¹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 ²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 ³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 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 ⁵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 ⁶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 누가복음 5장 1~6절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순종 이전에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_눅 5:3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2. 다시 고기잡이를 나간 것이 은혜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지라 _눅 5:2

밤새 어업을 마친 고단한 어부가 그물을 씻고 다시 고기잡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만 더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으며 고단한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나간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지만, 모두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단한 중에 바다를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3. 그물을 내린 것이 은혜입니다.

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⁵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_눅 5:4~5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의 어업 방식은 던지는 투망이기에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시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